

라고나브 섬 선교 소식

--- 2021년 5월의 소소한 이야기들

빌립보서 3:16

궂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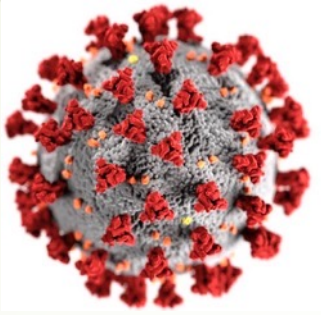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I press on to reach the end of the race and receive the heavenly prize for which God, through Christ Jesus, is calling us



샬롬~~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샬롬이란 단어가 절실히 생각나는 시절입니다
오랫만에 아이티 라고나브 섬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와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COVID-19



그리고

심장



코로나....

2020년 여름, 아이티에서 아내와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열과 통증으로 인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시간들을 통해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심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지만 또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는 참으로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심장.....

올 겨울 검진 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갑작스레 발생한 흉통으로 인해 검진을 받았고 협심증 소견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터라 심장에 이상이 생긴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또 다시 한번 불안과 여러가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몇달 간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위축되고 우울감도 생기면서 살아 온 날 중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많은 격려를 통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선교지로 떠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많은 희생을 하였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온 가족이 6년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큰 딸 소연이는 재택 수업을 할 수 있어 한국에 잠시 들어 왔습니다. 둘째 딸 시온이는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점도 많지만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지내며 서로 격려하며 다시 알아가는 family reunion의 시간도 은혜롭게 누렸습니다



라고나브 섬을 다시 찾으며.....

곧 오리라고 생각했던 일정이 심장 시술로 늦어지면서 5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라고나브 섬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헤어졌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갑고 살뜰했지만 그는 여전히

혈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무기력하였습니다.

근래 3년간 지속된 정치적 소요와 치안 부재, 그리고 팬데믹으로 장기간 아이티가 봉쇄됨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라고나브 섬은 요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제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림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뿌리내리고 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잡초처럼 척박한 땅에서도 뿌려진 복음과 교회의 씨앗은 자라갑니다.

비록 따가운 햇빛이 들어오고 비가 새는 천막 교회이지만 제가 없는 동안에도 현지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7일 밤낮으로 부흥회를 개최하여 수천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년 전에 개척한 베델 새소망 교회를 통해 매주 끊임없이 이곳 빈민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십계명을 외우고 성경을 외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지 스텝들에 의해 교회와 청소년 사역들이 뿌리 내리며 자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이 6:3)

이 말씀은 2013년 라고나브 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청소년들을 주의 말씀으로 예비하여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전부터 청소년들을 모아 후원자들을 통해 학교를 보내고 여름 단기 팀들을 통해, 그리고 매주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지대웅 선교사님이 오셔서 청소년 사역에 참여하여 각종 리더십 프로그램 및 방과후 스쿨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리더십 훈련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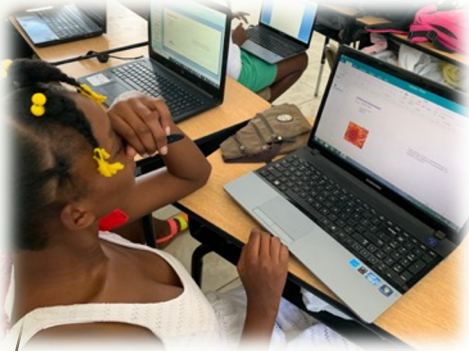
새싹 제자 그룹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이곳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열망합니다
매일 보는 것이 온통 진흙 바닥과 메마른 먼지와 굶주림과 목마름과 아픈
것들 뿐이지만 이들은 무엇인가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소망 선교센터에 매일
와서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악기들을 배웁니다. 배울 때 눈에 생기가
돕니다. 여기에 무슨 현실에 대한 돌파구가 있는 것처럼 집중하고 배울려고
합니다. 현지 교사들과 컴퓨터 어학학습 교재, 노트북 등으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블릿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학습교재들을
준비하여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교실



로제타 스톤 영어교실



킷킷 영어 기초교실



오팍, 작은 바닷가 마을에 학교를 세우다

천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바닷가 마을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수정 교회의 헌신을 통해 바위 투성이, 가시밭 무성한 마을에 그들의 숙원인 학교를 지난 3월에 완공하여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육지 학교에 다니기 위해 먼 뱃길을 가야하고 또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자취를 하던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마음껏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생들 월급도 제때 못 주지만 그리고 좋은 책도 없지만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교실에 앉아 있는 것 만으로 그들은 행복합니다. 이곳에 책상과 의자 그리고 동화책과 교과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작된 소액대출 사업-- chicken far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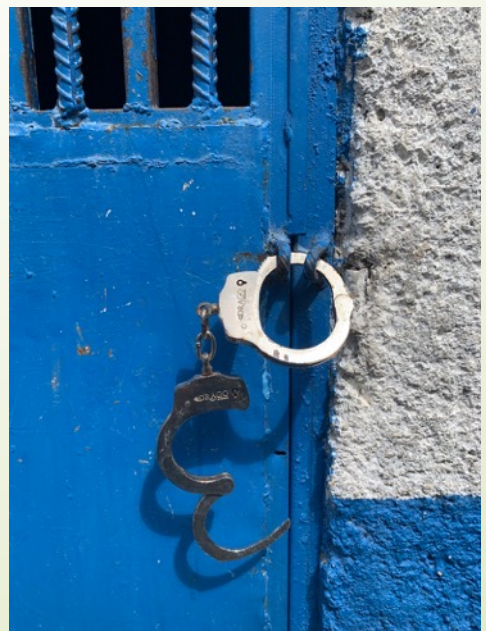
코로나 봉쇄로 오랫동안 지역사회가 고립되면서 라고나브 섬 경제는 거의 붕괴위기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위해 이곳 저곳으로 떠 돌아 다니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많이 약해짐을 봅니다. 영적 양식 공급 외에 경제적으로 자립 시키고 영적, 육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자립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소액대출(micro finance business)를 올해 초 시작했고 첫 사업으로 기존 양계 사업장을 하던 곳에 대출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사업이 확장되면 고용창출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도 좋은 영향력을 줄 것 입니다



또 다른 이끄심.....만나 프로젝트

한 병든 노인의 얼굴이 떠 옵니다. 몇 년 전 선교 센터 근처 빈민가 사역을 마치고 오면서 운 좋게 싱싱한 생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생선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외딴 오두막을 지나는데 그 안에 노인이 아픈 몸으로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몇 알 안되는 콩알을 다 찌그러진 냄비에 넣고 나뭇가지로 불을 지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가진 생선을 주고 쌀도 사주고 싶었으나 생선이 너무 먹고 싶었고 또 바쁜 일들이 있어 그냥 왔습니다. 몇 일 후 그 노인이 생각나서 다시 방문했을 때 텅 빈 집이었습니다. 이웃이 말하기를 마지막 끼니를 먹고 그 후 먹지 못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발걸음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노인의 얼굴이 불쑥 불쑥 떠 오르며 '위선자'란 맘 속에 맴돌 때 '여기 섬에는 절대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능력 밖이야'라고 자위하고 애써 외면하며 다른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을 동안에 한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히고 떠돌아 다니는 자 등, 지극히 작은 자를 돕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흘려 보내신 재정을 통해 먼저 섬에 있는 맹인들, 중풍 걸린자, 정신 이상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외면당하고 있는 이들을 먼저 60명 정도 선발했고 1년 간 매달 한번씩 지역 목사님과 저희들이 방문하여 복음과 식량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만나 프로젝트가 일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시 가야 할 길.....

“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네가 누구고?”

아이티로 떠나기 전에 고향에 들려 아버지께 인사하러 갔을 때 치매 증상으로 아버지는 오랫동안 만난 아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신다. 어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신다. 두 딸과 좀 더 요양이 필요한 아내를 뒤로 하며 다시 탑승구로 짐을 끌고 향했다. 내가 아이티로 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십 수가지 댈 수 있지만 다시 가는 하는 것은 단 한가지 나는 예수님께 빛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버린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그 빛을 이곳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 언젠가 우리들의 작은 희생을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동역자분들께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많은 교회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내와 제가 지친 육신과 마음과 영이 속히 회복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받은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2. 이곳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직업훈련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당한 부지와 재정과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3. 이곳 청소년과 교회 가운데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성경공부 교제 번역과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정착되도록
4. 아이티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고 갈수록 치안이 불안해지고 경제적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정치가 속히 안정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부. 흥.

섬, 라고나브
달밤, 부흥회를 연다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손님 하나 찾아 올 것 같지 않던
이 땅, 잊혀진 이 곳에 부흥회를 한다

삼일 밤 낮, 북을 울리고 팽가리 치고
흙먼지 날리며 거리 거리를 헤집고
고래 고래 소리 지르며 사람들을 부른다

절뚝거리며, 더듬거리며, 머뭇거리며 헤죽거리며,
해가 지면 사람들은 바퀴벌레 마냥
이곳 저곳에서 기어 나온다

검은 바닷가,
달 빛 차오르고 파도가 잦아들면
늑든 마이크로 토마스 목사는 목청이 터져라 외치고

밤새 외치고 밤새 듣지만
파도 소리 높아지고 달빛 가득 할 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많이 아프다

희멀건 달에 찢어져라 북을 치고
검푸른 바다로 피 토하게 나팔을 불고
심장이 터져라 가슴을 치고 외쳐 보지만

내 아비의 아비의 아비들은 어디서 왔는가?
내 애미의 애미의 애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냥 당하고 고깃덩이처럼 꼬챙이에 끼워 배에 태워져 멀리
실려온 이 곳,

나의 오래된 형제의 형제의 형제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샷대질하며 각혈처럼 선명한 시벨건 아우성을
누런 손수건 같은 달밤에 뿌려보지만

구름 속으로 달은 재빨리 들어가고
바다는 돌아서 애꿎게 바윗돌만 하릴없이 찬다
내 가슴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내리는데

불이 꺼지고 이렇게 작은 잔치는 끝난다
토마스 목사는 주섬 주섬 짐 챙쳐 떠나고
다시 달빛은 고요하고 바다는 잠잠한데

검은 갯벌가, 작은 흐느낌들은
여기 저기 아직도 웅크리고 남아
쓰레기 봉지 마냥 거칠게 나부낀다

들썩이는 어깨위로 달빛 일렁이고
파도, 거친 발바닥을 매 만질 때,
모든 것은 정지하고 검은 고요함에 잠긴다

이윽고 하늘이 열리고
태고의 침묵이,,,,,
은빛 비둘기처럼 그들 가운데 내려 앉으면

간지러워 하얀 이빨을 들어내고
사람들은 생전 처음으로 미친듯이 웃어댄다
태고의 갯벌에 나뭇굴며 천년 굴은 웃음들을 토해낸다

그리고 은빛 깃털에 싸여 그들은 한참을 꿈 쫓다
꽃이 피고 파랑새 날고 바오밥 나무 빛나는 그 땅을,
사자처럼 표호하며 느리지만 왕처럼 걸던 그 곳을

그래
거기, 그곳,
오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던 곳